**민2240 Note**

**◆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민22:40]주제1: [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다]주제2: [발람을 환영하는 발락]

▶ 우양을 잡아... 대접하였더라 –

이것은 단순히 발람 일행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, 발람의 신(神)에 대한 기원의 제물이었다(Keil). 이러한 것은 저주를 선포하기 전날 우양을 잡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해진다(Hengstenberg).

즉 모압 왕 발락은 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가진 사고 방식대로 제물을 발람의 신(神) 여호와(모압 왕은 발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간주했다)께 바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애썼던 것이다.